

漢藥材 応用에 對한 臨床手記(3)

韓 璉 植 한일가축병원

〈전호에 이어서〉 유방염에 쓰이는 한약재들.

(가) 薏苡仁(억이인) 은 울무 및 연밤속역이라고도 한다. (학명은 *Caix-Lacrymajo-bi-Varfrumentaa*) 이 식물은 포아풀과(禾本科)에 딸린 園圃에 재배하는 1년생의 草本으로서 키가 1.40m 가량크고, 잎은 잎사귀에 줄기가 뚜렷하게 있고 잎폭이 넓다. 여름철에 잎사귀



울무

의 사이 겨드랑이에서 꽃대가 생겨나와 자웅의 꽃이 핀 뒤에 타원형으로, 껍질이 범랑질 모양의 열매가 맺어서 가을에 수확하고 이 열매를 식용 및 약용에 쓴다. 성분은 수분이 8.5%, 조단백질이 17.5%, 조지방이 7.1%, 전분이 51.6%, 회분이 2.3%가 각각 들어있다.

약효는 이뇨, 진해, 진경 및 자양제이다. 또 피부와 생식기 및 비뇨기 계통의 질병에 효과를 나타내고, 신장에 별로 부담없이 이뇨를 촉진 시키게 됨으로 유방염의 처방조제에 加味한다. 일본에서는 울무를 가지고 이뇨제인 오미도닝 이라는 신제품이 제약되어 이뇨제로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용량은 큰소를 표준하여 (이하동일함) 16g씩 사용한다.

(나) 白朮백출은 삼주뿌리라고도 한다. (학명은 *Atractylis-Lanea*) 이 약초는 영거시과(菊科)에 딸린 다년초로서 봄에 땅속에서 어린 새싹이 터져나와 백색의 연한 털이 깔



백출

렸으며 줄기의 높이는 약 30~60cm 정도의 키가 크고 탄력성이 있는 여문 줄기가 피어있고 윗가지는 갈라지고 곧게섰다.

잎은 마주나서 잎자루가 길고, 강질로서 위로 찢어져 계란 모양 및 타원형이고, 가시같은 톱니가 생겨있다. 꽃은 백색 또는 흑색으로 7~9 월경에 핀다. 뿌리를 채취하여 약용에 쓰고, 성분은 감풀이 함유되어 있고, 약효는 이뇨 발한 진위 등에 효과가 있다. 만성병 치료에 없어서는 안되는 한약재인 만큼 만성 유방염에 주장할 만한 약재이다. 용량은 12g씩 사용하고, 법제방법은 뿌리를 절편하여 그늘에 말려서 쌀뜨물에 24시간 담궈둔 뒤에 백출 600g에 황토 10g 정도 첨가하여 질그릇 솥(이하 솥이라함)에 볶아서 사용한다.

(다) 白芷, 백지는 구리뱃 뿌리라고도 한다. 미나리과(繖形科)에 딸린 약초로서 성분은 휘발유가 들어있고, 약효는 흥분, 진통, 진경 등에 효과가 있다. 용량은 12g씩 사용한다. 유방염의 처방에 君使劑



백지

로 加味한다. 법제방법은 뿌리를 채취하여 그늘에 말려서 절편하여 쌀뜨물에 24시간 담궈 두었다가 볶아서 사용한다.

(라) 檳榔, 빈랑은 종려과에 딸린 약초로서 성분은 불명이고, 약효는 건위 및 다소의 살균작용을 하기때문에 유방염의 처방에 君使劑로 加味한다. 용량은 12g씩 사용한다.

(마) 厚朴, 후박은 모란과에 딸린 관목으로서 제주도 주산지인데 전국에 관상 및 약용의 목적으로 정원에 재배하고 있다. 나무 껍질을 벗겨 약용에 쓰고 성분은 불명이고, 약효는 이뇨, 소염, 광란, 中暈에 쓰이고, 유방염의 처방에 이뇨제로서 加味한다. 용량은 12g씩 사용하고, 법제 방법은 나무껍질을 그늘에 말려서 절편하여 생강즙에 볶아서 사용하게되면 소염작용이 있다.

枳殼, 지각은 운향에 딸린 과실로서 탕자나무 열

매의 누렇게 익은 껍질이다. 성분은 불명이고, 약효는 대장을 씻어주는 작용을 한다. 유방염의 처방에 君使劑로서 加味한다. 용량은 8g씩 사용한다.

법제 방법은 지각 껍질을 절편하여 그늘에 말려서 3%의 소금물에 지각과 같이 혼합하여 술에 볶아서 사용한다.

(사) 穿山甲, 천산갑은 천산갑과에 딸린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짐승인데 즉 鮫鯉라고도 한다. 검은 비늘이 박혀있고 끈끈한 침을 흘리는 짐승으로 인도, 대만 등지에 살고 있다. 천산갑의 껍질을 약용에 쓰는데, 꼬리 껍질이 더욱 좋다.

성분은 불명이고, 약효는 腫痛에 잘듣기 때문에 유방염의 소염제로 널리 사용한다. 법제 방법은, 천산갑의 껍질을 조개 껍질 가루에 혼합하여 볶아서 사용하고, 용량은 껍질을 12편까지 사용한다.

(아) 陳皮와 橘皮, 진피와 귤피는 운향과에 딸린 상록 관목으로, 柑과 橘의(식물학상에는 분류함) 이 두껍질의 內皮 흰심을 벗겨 낸 것은 木紅이라하여 보약에 쓰이게 되고, 그대로 말려서 쓰게 되는 것은 陳皮 또는 柑皮라고 한다. 성분은 右旋性 리모넨과 배당체 및 고미질이 들어있고, 약효는 건위, 고미, 발한제로서 유방염의 처방에 君使劑로서 加味

한다. 법제 방법은 3%의 소금물에 볶은 것은 하초에 약리작용을 하고, 5~7세 어린아기의 소변에 볶은 것은 肺病에 쓰이게 된다. 용량은 8g씩 사용한다.

(자) 沒藥, 몰약은 血竭 및 驢麟竭이라고 한다. 감람과에 딸린 喬木으로서 성분은 불명이고, 약효는 강장 및 보약에 쓰게되고, 특수한 이뇨작용을 잘하기 때문에 유방염의 君使劑로 사용한다. 용량은 4g씩 쓰게되고, 법제 방법은 몰약의 樹脂에다가 꿀을 약간첨가하여 술에 찌서 사용한다.

(차) 茯苓, 복영은 真菌類에 딸린 菌木으로서 그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솔나무의 송진이 열을 받아 녹아서 솔 뿌리를 따라 땅속으로 들어 가게 되면 버섯균으로 변하여 菌木이 형성된다. 이 우목이 큰 무우 정도의 크기에서 빛이 흰것은 백복영이라 하고, 황 송목에서 형성된 것은 붉은 빛이 나오는데 이것은 적복영이라고 한다. 또 황 松節의 菌木이 수백년 동안 자라서 직경이 30cm 이상 되면은 외피 10cm 정도는 적복영이 되고 또 그 안에 단단한 것은 심장약인 赤茯苓이라 하고, 맨 안속에는 귀중한 琥珀이란 것이 들어 있는데 이 호박은 옛날 사람들이 망전에 관좌도 만들어 끼고 단추도 만

들어 달았다고 하는데 관작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호박은 보석보다 더 귀중하다고 옛날부터 전해 오고 있다. 호박은 한약재에도 사용되지만 또 몸에 가지게 되면 정신이 좋아지고 잡신이 범하지 못하며 여름철에는 모기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한다. 복영의 성분은 포도당 및 과당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성분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약효는 강장보약 및 기관지염과 수중에 잘든고 수종의 소염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유방염에 소염제로서 사용한다. 용량은 12g씩 쓰고, 법제 방법은 절편 건조하여 쌀뜨물에 24시간 담궈 두었다가 사용한다.

(가) **香附子, 향부자** 는 莎草라고도 한다. (학명은 *Cyperus rotundus*) 이 약초는 방동산이과(莎草科)에 딸린 습초로서 모래땅의 습기찬 곳에 자



향부자

라면서 땅속에 다년생의 뿌리가 있어 괴경을 이룩하고 있다 이 괴경이 엉금 엉금 기어나가서 번식하다가 봄이 되면은 싹이 터져 나온다. 여름철에 줄기가 서게되어 30cm 가량 키가 크고, 줄기위에 가지가 갈라져서 꽃대가 생겨나와 다갈색의 꽃이 핀다. 땅속의 괴경을 채취하여 약용에 쓴다. 성분은 세쓰기 델빙 및 알콜이 들어있고 약효는 통경과 진통 및 소염에 특수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방염에 많이 사용한다. 용량은 8g씩 사용하고, 법제 방법은 괴경을 절편하여 그늘에 말려 약간의 식초와 혼합하여 술에 볶아서 사용한다.

(타) **獨活, 독활**의 속명은 뿔두릅이라 하고, (학명은 *Angelica-pokaba*) 두릅나무과(五加科)에 딸린 약초로서 산야에 자생하는 2년생이다. 줄기 앞 전부가 毛茸이 많아나있고 키가 여름철이 되면 2~3



독활

m정도 크고, 잎은 마주나서 갈라졌고 형태는 우상복엽으로 잎자루가 넓어 줄기를 덮고 있다. 가을에 복산 화서로서 담백 특색의 5판화가 다수 배열하여 꽃이 피고 꽃이지고나면 암자색의 과실을 맺는다. 뿌리를 채취하여 약용에 쓰고 성분은 불명이고 약효는 통풍 및 부종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방염에 사용한다. 용량은 8g씩 쓰이고 법제 방법은 뿌리를 절편하여 말려서 쌀뜨물에 24시간 담가 두었다가 말려서 사용한다.

2. 젖소의 유방염에 대한 한약재 처방

(가) 連鎖狀 球菌性 乳房炎

乳腺内に 永存하는 細菌을 排出시키기 위하여 다음 처방으로 洋漢方을 併用한다. P1. 당귀 천궁 적복영 유향 몰약 각 8g씩 왕불유행 30g, 감초 4g 1회 1첩 1일 2첩, 2첩을 전탕한 찌꺼기를 합하면 또 1회분이 되니 1일 3회로 하여 약에다가 탁주 0.4ℓ, 물 0.4ℓ를 혼합 전탕하여 경구로 투여한다. 위를 3일간 투여한 뒤에 한방만이 사용하게되는 처방의 예를 들어본다. P2. 황백 황기 빈랑, 백출, 독활 각 8g씩 인삼 오약 각 4g씩 시호방

풍 각 6g씩 관계 감초 각 4g씩 약에다가 물 1ℓ 을 혼합 전탕하여 1일 3회 경구로 투여하고, 3일간 투여한뒤에 2일간 휴약하고 반복한다. P3. 황백 황기, 방풍, 백출, 광활 각 8g씩, 조각자 2g, 천산갑 10편 시호 감초 각 2g씩 약에다가 물 1ℓ 를 혼합 전탕하여 경구로 투여한다. P3은 만성경향이 있는 증상에 대하여 오래 투여한다. P4. 길경, 백출, 백지 각 각 산치자 각 8g씩 적봉영 가루인 각 10g씩, 소엽, 금은화 각 12g씩, 감초 4g, P4는 효과가 조금 나타날때에 투여한다. 약에다가 탁주 0.5ℓ, 물 0.5ℓ 를 혼합 전탕하여 경구로 투여한다.

(나) 葡萄狀 球菌性 乳房炎

전항 (가)와 같고, 局所에 증상빛 동통이 심할때에는 다음 P5를 사용한다. P5. 소엽 35g, 인삼, 황기, 당귀 각 16g씩 천궁, 관계, 후박, 백지, 방풍 오약, 독활, 빈랑, 백작약, 지각, 목향, 감초 각 8g씩을 약에다가 물 2ℓ 를 혼합 전탕하여 1일 3회 나누어 경구로 투여한다.

(다) 篩狀菌性 乳房炎

위는 독소를 배출시키고 백혈구를 증식시켜 주고, 식욕감

퇴와 탈수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P6은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각 8g씩 황백, 방풍, 인삼. 시호, 감초 각 6g씩을 약에다가 물 1ℓ 를 혼합 전탕하여 경구로 3일간 투여한다.

(라) SP, aeruginosa 乳房炎

농양이 있을때에 P8을 사용한다. P8. 소엽, 길경, 관계, 황기, 가루인, 유향, 몰약, 황백, 금은화 각 8g씩 조각자 10편 감초 4g, 물 1ℓ 에 약과 혼합 전탕하여 경구로 투여한다.

(마) C.Pyogenes 乳房炎

위의 P8을 사용한다.

(바) 異狀形態와 만성破性 및 壞死性

乳房炎등에는 P1 및 P5를 사용한다.

3. 乳房炎의 併發症에 治療例記

급만성 심 아 급만성으로 罹患中에 고열 식욕감퇴 급격한 체력 소모와 유방 국소에 현저한 부종이 나타나고, 또 급성에서 만성으로 機轉하고 전신의 탈수현상이 돌발하여 소변의 색깔이 변하였을때는 실질

장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음 P9를 사용한다. P9 숙지황, 山藥, 山茱萸, 백복영 목단피, 益智仁, 각 8g씩 菌陳 金櫻子, 遠志, 若參 각 4g씩 약에다가 물 1ℓ 를 혼합 전탕하여 경구로 투여하여 효과를 보았다, 위에 대하여 대장염이 병발 하였을 때는 糞妻 生地黃 지각, 각 8g씩 蕭畜 4g를 加喚하게되고, 신장염이 병발일 경우에는 蒼木 胡盧巴 각 4g씩을 加味한다. (注 약재명이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것은 목초의 성장과정이 기술되지 아니한 것)

4. 결 론

神農氏는 人身牛首로서 菅百草하여 製醫藥하고 하셨는데 소는 초식수로서 자기 질병에 스스로 나올 수가 있는 해당약초를 채식한다고 한다. 그러므로서 한약이 소의 질병에 대하여 처방만 적중되며는 월등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것은 사실이다. 또 실예를 경험해 보아도 소의 체질에 草根木皮가 단위 동물보다 취호성이 많아서 질병의 치료에도 부합이 잘 된다고 보아진다. 옛날 어떤 산골마을에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를 길렀는데 하 루는

어미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안 먹이려고 뒷발로 차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어미소의 유방 부위를 살펴보니 젖꼭지가 푸른것을 발견하고 소의 고삐를 벗겨 산으로 올려 보냈더니 해가져서 소가 집에 돌아와서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더라는 것이다. 역시 다음날에도 굴레를 벗겨주고 축주가 소의 뒤를 따라가 엿보니 소가 승금초(當歸)와 뿔미나리(柴胡)를 뜯어먹고 집에 돌아왔다고 하여 소가 병이 나아 저서 마땅히 돌아왔다고 승금초를 當歸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고 柴胡의 뜻은 壽積(장수한다는말)이란 의미인데 뿔미나리를 오래 먹게되면 오래산다는 뜻이다. 한약재의 약명은 대개가 이런 암시를 하고 있다. 소가 야생동물로서 순화되기 전에는 자유로이 풀을 뜯어먹고 살아 나아갈 때는 50년 내외를 살았다고 한다. 현재 낙농 방식을 보면 초지가 없이 대부분 외양간 방식으로 젖소를 사육하게 되니 없던 병도 생기게 되고 있는 병도 잘 낫지 않고 또 치료방법 이래야 병균의 내성만 주어지는 항생물질만 쓰게되는 현 시점에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한약재를 연구 개발하여 질병을 최소한 줄여 보자는 것이다. 또 항생물질이 개발되고 나서 인축을 막론하고 그 공로

도 적지않은 것은 자타가 공명하는바다. 그러나 항생 물질은 지나치게 남용되었고 햇수가 오래되어 동물체내에 내성이 조성되어 공해를 입고있는 실정에서 자연약품인 한약재를 병용 또는 단용 해서라도 공해를 입고있는 실정에서 자연약품인 한약재를 병용 또는 단용 해서라도 공해를 방지하는 치료방법을 사용해야 사람이 공해없는 우유도 먹을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洋漢方을 併用하게되면 치료과정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나 인간도덕 면에서 볼 때 소도 사람에게 딸린 동물이고 우리의 건강을 도우는 영양의 보급원천이 되어있는데 고질병을 치료시켜 놓고 이용하자는 것이다.

젖소의 유방염에 예방 대책으로 한약을 분쇄하여 사료에 첨가제로 하기위하여 메이커가 필요한데 첨가제의 처방 예를 들어보면 P1.당귀, 건지황, 백작약 각 8g씩 荊芥 왕불유행 금은화, 인진 각 30g씩 계피, 감초 각 6g씩 P2.방풍, 황백, 적작약 각 8g씩 빈랑, 지각, 왕불유행, 향부자 각 30g씩 계피, 감초 각 6g씩 P3.당귀, 천궁, 백작, 약 각 8g씩, 소엽, 왕불유행, 금은화, 천화분 각 30g씩 관계, 감초, 각 6g씩을 P별로 합하면은 156g가 된다.

이를 분쇄하여 1일 3회로 1

회에 10g씩 사료에 첨가하여 먹이게 되면 5일분이 된다. 값도 싸고 비유량도 증가되어 경제적 타산도 맞아 낙농발전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유방염의 예방도 된다고 본다. 지금 우량 우유의 생산 기술면에서 볼 때 불안한 요소가 제일 젖소의 유방염 때문에 낙농 하기가 무섭다 라고 하는 불평을 자주듣는다. 초지가 없는 목장에는 일조의 시간이 짧고 소독 및 운동등이 부족하여 젖소의 체력이 약해지니 아무리 좋은 洋方치료인들 그효과를 거둘수가 있는가 생각해 볼일이다. 그래도 한방은 약성분이 들은 목초인 관계상 낙농업에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젖소의 체질향상과 병독의 중화작용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늦은 감이 있더라도 한방을 적용 시켜보자는 것은 옛날부터 소가 자연으로 한약재를 많이 발견하였는데 소가 순화되고부터는 이를 적용 못하게 되었다 많이 순화시킨 우리 사람들이 소에게 한약재의 채식을 조장시켜 주어야 되는데 여건이 부족하여 휴우증이 있었다. 8.15 전후를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소의 질병에 한약을 먹인뒤에 많은 손실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 원인을 규명하여 보면 한약재를 전탕한 약물을 가지고 경구로 투여하면서 사람이 잘못하여

많은 약물을 강제로 투여했기 때문에 식도를 통해 약물이 먹어지지 않고 기관지를 통하여 오연 됐기 때문에 오연성 및 이물성 폐염을 일으켜서 죽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니 한약에 대한 평판이 나빠졌는데 실재는 약물 투여과정이 잘못되어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약과 처방자체가 나쁘다고 하였다.

지금은 의사가 있어서 이를 발견하고 계몽과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중전에는 불의에 죽어간 소도 없지 아니하였다. 또하나 여론이 나빠진것은 과거 의사들은 한약 취합하지 않았고 대략 한약을 취합하는 선비들이 소만 아프다고 하면 흑자는 곽향정기산을 쓰게되고 또 다른 선비는 승마갈근탕을 열이 날때나 배가 아플때나 똑같이 쓰게되니 병이 치료될 이치가 없는지라 농촌에 우의들이 투약하는 것을 보면 계란, 머리카락, 고삼, 술 등을 쓰게 되니 급성고창증 같

은데에 이런 약을 투여하면 제 4 위로 부터 대장까지 개도가 안되어 소가 죽게 마련이다. 폐사우 검안때에 이런 것을 많이 보았다. 지금도 농촌에서 소의 질병에 한약을 쓰라하고 권유하게되면 싫어하는 농민이 있다.

특히 젓소에게 열이나서 해열제를 적당하게 쓰고 해열이 잘안되어 애를 먹다가 한약을 쓰게되면 열이 빨리 내리는 것은 洋漢藥의 供同作用으로 病巢分解 現狀 및 解毒作用이 現出되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의과 대학을 나온 의사들이 가축 질병 치료에 대한 지식이 고도로 성장해 있고 과학적 응용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약재의 연구면에서 그 적용 방법을 실제로 이끄는 데는 쉬운 과제로 생각된다.

洋漢方의 併用으로 가축질병의 치료에 개가를 올리게 된다 면 전세계적인 이목이 우리 한국에 집중 되리라고 믿어 마지 않는다.

〈참고〉 소에대한 禁忌 한약재

쇠무릎(牛膝), 생강, 아욱(蔡菜), 부추(非菴), 고사리(蕨菜) 임신된 암소의 禁忌 한약재, 南星, 半夏 巴豆, 大戟 續隨子, 商山, 通草, 蘇木 生乾葛.

돼지에 대한 禁忌 한약재.

黃蓮, 蒼耳(苔耳), 烏梅, 吳茱萸, 巴豆, 大戟, 續隨子, 商山, 通草 蘇木 續隨子, 蕨菜.

〈參考文獻〉

漢方醫藥處方全書, 方藥合編, 藥草本經, 全植物圖鑑, 和漢醫學全書, 本草綱目, 最新獸醫臨啓床學概要.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368번지 전화: 중교 21번)